

박사학위 논문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채 속 희

2011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송철의 선생님

본고는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의 다양한 양상을 기술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 연구 방법을 밝히고 인용구문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인용구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인용구문 논의에 필수적인 인용의 방식과 인용구문의 범위, 인용구문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용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구분의 필요성과 구분 기준에 대해 고찰해 보고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중간적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간적 방식들 가운데 현대 한국어 구어에서는 자유직접인용과 반직접인용, 그리고 유사직접인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용구문을 ‘인용동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인용구문과 유사하나 인용구문으로 볼 수 없는 구문들을 제외함으로써 인용구문의 범위를 확실히 하였다. 인용구문의 구성요소로는 인용동사, 피인용문, 인용표지가 있다고 보고 인용구문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인용술어를 다루었다. 먼저 구어 인용술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후 인용술어를 인용동사와 인용 복합술어, 인용 관용표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어 인용술어

의 특징은 지시동사 ‘그러다, 이러다’와 포괄동사 ‘하다’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에 있었다. 인용동사는 크게 발화동사와 인지동사, 포괄동사로 분류하였다. 발화동사는 원청자의 통사적 실현 양상에 따라 일방동사, 전달동사, 대칭동사, 대상동사, 수용동사, 기록동사로 세분하였다. 인지동사는 피인용문의 직접인용 가능성에 따라 외향동사와 내재동사로 세분하였다. 인용 복합술어와 인용 관용표현은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면서 동시에 문장 구성에서는 한 단위를 이루어 인용술어로 기능한다. 이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용동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4장에서는 인용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인용표지로 다루어 온 ‘고’, ‘라고’, ‘하고’ 외에, ‘라’와 ‘Ø’도 인용표지로 보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라’는 ‘라고’와 그 특성이 구분되며, 일정한 형태를 갖춘 어떠한 인용표지도 쓰일 수 없어 인용표지 ‘Ø’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용표지의 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인용의 방식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렇게’,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지시어지만 일부 구성에서 인용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을 유사인용표지로 보고 이들이 쓰인 인용구문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피인용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인용 방식에 따른 피인용문의 양상과 특징을 알아보고, 피인용문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경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용의 방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또한 ‘피인용문+느니’, ‘피인용문+거니’, ‘피인용문+나’와 같이 피인용문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와 ‘피인용문+는 등’과 같이 피인용문에 어미 상당 구성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들은 피인용문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경우와 비교하여 유표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피인용문의 일부나 전체가 원발화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리채우미(placeholder)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인용문에 쓰이는 자리채우미로는 비한정사(indefinite), 지시어, ‘어찌고저찌고’, ‘어찌고’, ‘이러쿵저러쿵’과 같

은 관용표현이 있었다.

6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